

# 오피니언

## 특별기고

우제길



반도의 문화 거점도시로 태어날 것을 우리들은 기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남도 문화의 역사적인 근원에 대해 정확하고 심도 높은 논의나 연구가 다시 필요하지 않을까? 광주와 주변의 다양한 문화, 역사적인 요소들에 대하여 그 근원을 다시 캐어 보고 새겨보는 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현재에서 과거를 되돌아보며 미래를 설계하는 현대적 해석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삶을 영위하고 있는 남도는 옛 선조의 체취나 역사적 흔적이 수없이 산재한 곳으로 그 가치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매우 유별난 곳이라 할 수 있다. 지난

유산에서 현대미술에 뒤지지 않는 미적 가치를 쉽게 접할 수 있으며, 그미적 가치는 종종 시대를 뛰어넘는 커다란 아름다움이기도 하다. 더불어 남도는 수많은 외부의 침략과 근현대사 안에서의 소외감 속에서도 독특한 문화를 창조해 왔었고, 그 정체성 또한 심화시켜 왔었다.

전라도는 예로부터 삼면이 바다로 긴 해안선과 풍부한 일조량, 비옥하기 그지 없는 넓은 평야 덕분에 삶의 여유와 풍요를 누렸던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도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문화, 즉 정서적으로 풍부한 예술적 기와 여유를 형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어찌 보면 잠재되어 있는 남도 문화의 발전 가능성은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적으로 문화의 힘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발언이 이상적인 표현만으로 치부되지 않으려면 남도문화의 근원에 대한 확실한 재조명 작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심도 높은 학술적 연구는 물론 다각적인 접근 방식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 국립 아시아문화전당과 앞으로 들어서게 될 광주의 대규모 문화 자원들이 남도문화의 근본과 뿌리들을 확인시켜 나가는 작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며, 미래에 대한 커다란 청사진을 그려내야 한다.

선조의 문화예술 흔적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사라질 수 없는 고귀함 그 이상의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음을 우리 모두 마음 깊이 새겨둘 때이다.

〈우제길미술관 관장〉

## 남도 문화, 그 근원을 생각할 때

를 당당히 드러내게 되고, 올 가을에는 제 9회 광주비엔날레를 치르면서, 광주는 문화수도로서의 자리매김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얼마 전 영국 에딘버러 공연에서 큰 상을 수상하는 등 광주 문화예술 발전에 커다란 몫을 할 광주문화재단의 발족으로 광주의 문화예술 발전이 가일층 앞당겨질 것이라 기대 또한 크다.

이렇듯 남도에서 굵직한 일련의 문화행사가 이어질수록 남도 문화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옛 화려했던 백제 문화가 그 맥을 잇는 동북아 한

날의 흔적과 유산은 바로 오늘이며 우리들 스스로이기 때문이다.

순수한 민간신앙으로 이루어진 환순 문화의 천불천탑이라든지, 2000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환순의 고인돌 유적지, 그리고 영산강을 중심으로 한 마한의 역사적인 흔적, 웅관묘와 고분군 등은 고려시대의 강진 청자와 더불어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우리에게 선사하며 바로 세계적인 것이라 자부할 수 있는 소중한 유산들이다.

나아가 우리는 과거의 찬란했던 문화

## 또 터진 지자체 공직 비리 근절대책 없나

지자체 공무원들의 '모럴 헤지드'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 전남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이 부실·졸속 행정으로 인한 예산낭비는 물론 토착세력과 부당한 수의계약, 급품수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이 지난해 5~7월 순천·나주·신안·무안·구례 등 전국 2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계약 관련 토착비리를 점검한 결과 공직 비리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감사원은 해당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소속 지자체에 징계를 요구했다.

도서식수원개발사업을 총괄하는 신안 사업소장은 명절 인사비 명목으로 4100만 원을 받아 직원들과 나눠 썼다. 이들은 또 해수담수화사업을 하면서 계약내용과 다른 지급 제품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주는 등 업체에 편의를 제공해주며, 예산낭비를 초래하기도 했다. 시민 혈세를 낭비한 꼴이자,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다.

순천시의 경우 더욱 가관이다. 수의

계약이 제한돼 있는 시의원 직계 가족 소유업체와 4건(4016만 원)의 수의계약을 했다. 법규상 지방의원 가족이 50% 이상 지분을 가진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지자체의 잘못처럼 보이지만 의원의 요구나 압력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나주시와 구례군은 해당 자재나 제품 생산능력이 없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 관련 업체에 각각 수억 원대의 특혜를 제공했다. 무안군은 계약 업체와 납품 업체를 달리하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의 계약질서마저 어지럽혔다. 그야말로 공직 비리가 도를 넘은 것이다.

지방공직사회계의 모럴 헤지드 현상이 이들 5개 시·군에 한정됐다고 믿는 국민은 없다. 이런 공직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숨방방이 처발이' 주원인이 다. 비리 공직자들이 발붙일 틈이 없도록 내부통제와 외부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자성과 대책 마련, 그리고 진정한 공직사회 개혁이 시급하다.

## 경찰, 학생들 '왕따 카페' 지속적 단속 꾀야

인터넷 폭력이 심각하다.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생들의 폭력도 인터넷 공간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속칭 '왕따 카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카페를 개설한 학생들은 같은 반이나 학교의 특정 학생에 대해 비난과 욕설을 하는가 하면 따돌림을 위해 다른 학생들까지 가입시켰다. 이는 두부 모란에 나뭇처럼 하자는 것인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미래는 실력시대다. 앞으로의 실력은 과거에 주목하던 외적 정보의 취득이나 조잡을 해는 충신과 대신이 있는 해로서, 이 나라의 미래를 방향 짓는데, 아주 중요한 해이다. 그리고 각 분야에서 많은 지도자가 새롭게 배출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실력으로써 미래에 성공하는 지도자는 남성과 여성으로 대별되는 품성의 특성인 진실성과 너그러움의 여유를 잘 조화시키는 사람이다. 그리고 미래를 바르게 판단하는 지혜의 안목과 대중을 위하는 열정과 신뢰성을 갖춘 사람이라고 확신한다.

〈원불교 동양고당 교무〉

이 묻어간다. 경찰은 해당 학생들에 대해 학교와 학부모가 선도한다는 조건으로 불인건 처리했다고 하나 학생들 사이에 왕따 카페가 성행해온데다 자연령에 따른 '도방 심리'도 강제 확산 소지가 다분하다. 또 인터넷 특성상 가해학생에 대한 파악이 쉽지 않다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경찰은 학생들 사이에 따돌림을 위한 카페가 개설될 정도로 지능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꾀지 않으면 안 된다. 포털사이트 측도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해 인터넷 카페 개설을 차단하거나 폐쇄하는 방안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

학교와 학부모들도 학생들이 사이버 폭력에 가담하거나 그로인한 피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 대처해야 할 것이다. 초·중학생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면서 학교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중고칼럼



김성근

지금으로부터 십 수년 전의 일이다. 우연히 어느 건설 작업장을 찾았다가 보게 된 경이로운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다. 한 포크레인 기사가 모자를 꼭 눌러 쓰고 얼굴을 거의 가리도록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작업을 하고 있어서 무심히 지나쳤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휴식시간이 되어 간식을 먹게 되었는데, 모자와 마스크를 벗은 그 포크레인 기사는 놀랍게도 여자였다.

자체였다. "어떻게 여자가 포크레인을 운전할까?" 나중에 작업현장 책임자에게 남자 기사들과 비교하여 작업 능력이 어떤지를 물어보았더니, 고집피지 않고 섬세하게 일을 잘한다는 것이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여성 지도자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전 여자 포크레인 기사도 그리 경이롭지 않다. 그만큼 모든 분야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크게 인정되었다. 알뜰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은 그야말로 케케묵은 고깃집 이야기가 되었다.

그러면 과거에는 남성이 주권을 가진 시대이고, 미래는 여성이 주권을 가진 시대가 될 것인가? 자칫 단순 비교로 판단할 수 있으나, 그건 아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과거와 같이 대결과 분열의 구도가 아닌,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배려하여 조화와 통합력을 가져야 성공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 성공할 미래 지도자

올 날 두각을 나타내는 여성 지도자들은 과거 남성 지도자들이 갖지 못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여성의 품성은 대체로 무슨 일이나 아주 주밀하여 허술함이 적지만 웅남성이 없는 반면, 남성들은 대체로 너그러우나 진실성이 부족한 면이 있다.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들의 품성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남성 지도자는 철저히 진실성을 갖추는 일이다. 반면 여성 지도자들은 상황성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 너그러움과 여유를 갖춘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성공가게에서나 주장될 이야기라고 쉽게 판단해 버릴 수도 있다.

## 기고



하영철

요즘을 학교 폭력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가장 걱정하는 사람은 학부모다. 특히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의 학교 폭력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학교 폭력의 약 60% 이상을 중학생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학생은 사춘기의 삶을 살기 때문에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에 비해 학교 폭력 같은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그들은 이성의 뇌인 전두엽보다 동물의 뇌인 편도체가 더 발달하여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죄책감도 잘 느끼지 못하는 버릇을 갖고 있다. 또 그들은 본능적, 비판적, 자기 주도적, 자율적, 창의적 삶을 추구하기 때문

에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려 한다. 이 같은 성격의 자녀를 학교 폭력으로부터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는 좋은 친구를 사귀게 하자. 사춘기의 자녀들은 부모나 선생님보다 친구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습성을 갖고 있다. 자녀와의 대화와 자녀교육에 중요하다고들 한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는 특히 사춘기 때는 더욱 어렵다. 자녀들은 부모와 다른 가치관과 그들의 문화를 갖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춘기는 성에 눈을 뜨는 시기이고 부모를 비판하기 시작하는 때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자녀의 깊은 속마음을 친구들로부터 얻어내자. 혼자서 공부만 하라고 하지 말고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고 놀게 하자.

둘째는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을 길러주자. 폭력을 이기고 폭력을 신고할 수 있는 자는 강한 자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가정에

서 칭찬만 듣고 자란 자녀는 폭력 앞에 꼼짝 못하고 폭력을 목격하고도 신고도 할 수 없는 약한 학생이 된다. 겨울 등산, 여행, 번지점프, 빙벽 타기, 다이빙 등 고난도 체험을 경험케 하고 자녀들이 넘치는 힘을 발산할 수 있는 공간에서 호신술도 배우게 하자. 그리고 칭찬, 보상과 더불어 한계와 책임, 질책도 과감히 행하는 부모가 되자.

셋째, 자녀와 함께 목욕을 하자. 부모 자녀 간의 스킨십은 사랑의 깊이를 말할 수 있고 신체의 변화를 통해 자녀를 좀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일주일에 1회 정도는 자녀와 함께 공중탕에 가서 목욕을 하면서 자녀의 신체적 변화를 알아보자.

넷째, 가방 불시에 가방을 점검하자. 가방을 점검하는 행위는 자녀의 인권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부모가 교육상 자녀의 가방을 살피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가방 속에 부모가 사준 물건, 사주지 않

## 학교 폭력 예방은 가정에서부터

수 있도록 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행정구역상 농어촌 지역인 읍면지역 소재 학교에서 3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고교 재학기간 중 본인과 부모 등 보호자가 모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경우에 해당한다.

부모가 읍면에 살지 않더라도 학생이 중고교 6년, 또는 초중고교 12년을 읍면지역 소재 학교에 다녔으면 자격이 있는 것이다. 별도로 농어민임을 증명하는 서류도 필요치 않다.

이 제도는 도시 지역에 비해 농어촌 지역은 다닐 확률이 마땅치 않고, 교육환경이 열악해 농어민이 아니더라도 혜택을 주자는 취지라고 한다.

있는데 갖고 있는 물건을 살펴보자. 사춘 물건이 없어진 이유, 사주지 않은 물건을 갖고 있는 이유를 밝혀 교육적인 조치를 취하자.

다섯째, 휴대폰의 문자 메시지를 살펴보자. 자녀가 부모님의 휴대폰 점검을 싫어할 수도 있고 또 미리 문자를 지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모님의 점검에 가까워 임하는 자녀의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문자 메시지를 지우지 않고 떳떳하게 보여주는 정직한 자녀로 기르자.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돌아올 때 자녀의 복장과 표정을 살펴보자. 폭행을 당한 경우 복장에 이상이 있을 수 있고 자녀의 표정에서, 부모와 눈 마주침에서 그들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고, 갑자기 학원이나 학교에 가기 싫어하고, 공휴일에 방에만 있으려는 자녀에게 부모는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누구도 학교 폭력에서 예외될 수는 없다. 모든 자녀는 학교 폭력에 노출되어 있음을 생각하고 부모가 자녀의 학교 폭력 예방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자녀교육에 힘써 학교폭력이라 말이 사라지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미래로 학교교육 도우미 대표〉

## 농어촌 특별전형, 농어업 종사 자녀로 한정해야

고향에 농사는 짓지 않지만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조금 있다. 그분들이 사는 집도 아파트이다. 그런데 이번에 그분들의 자녀가 대입시를 치르는 걸 보니 대입 정시모집에서 수도권 모 대학의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에 지원해서 합격했다고 한다. 아버지는 회사원이며 가족은 농사를 지을 땅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했다.

농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학생이지만 해당 대학의 모집 요강에는 행정구역상 농

어촌 지역으로 간주되는 읍면지역에 있는 고교에 다녔고, 3년 이상 학생과 학부모가 읍면지역에 거주했기 때문이다.

농촌은 학교도 부족하고 학원 같은 것도 없어서 도시에 비해 교육 환경이 좀 뒤떨어진다고 해서 그동안 농민들이 너도나도 농촌을 등지고 도시로 떠나갔다.

이런 열악한 농어촌 지역 학생들을 배려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은 대학 정원의 4%를 정원 외로 뽑을

그런데 농촌이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농어촌 지역의 개발이 되고 신도시가 들어섰거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경우에도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농어촌 특별 전형은 일반 전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내신과 수능 성적으로도 합격이 가능해 대도시 주변의 읍면지역 소재 학교에는 도시 출신 학생들이 몰려들어 위장 전입하는 경우도 적잖다. 이 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농어촌에 사는 것만으로 농어촌전형을 할 게 아니라 지원 자격을 농어업을 하는 사람의 자녀 등으로 엄격하게 한정할 필요가 있다.

▲우성우·광주시 북구 운암동

## 無等鼓

“어느 날 멀리 떨어져 살던 어머니가 아들을 찾아왔다. 서로가 바쁜 삶들이라 이틀날 헤어져야 했다. 아들은 힘들게 사시는 어머니를 생각해 자신도 힘들지만 월세를 내려고 찾아두었던 20만 원을 몰래 어머니 지갑에 넣어드렸다. 어머니를 배웅하고 돌아온 아들은 어머니가 찍 갈피에 끼워놓고 간 20만 원과 '방값 내는 데라도 보태라'는 편지를 발견했다”

독일 작가 에리히 케스트너의 소설에 나오는 내용으로 '윤리방정식'이란 용어를 만들어 낸 이야기다.

단순하게 '경제방정식'으로 보자면 모자(母子) 간의 교환은 이익도, 손해도 없는 교환이다. 그러나 여기에 '윤리방정식'을 대입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아들은 어머니를 위해 20만 원을 쓴 뒤 20만 원이 생겼으니 40만 원의 이익이 생긴 셈이다.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다.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서 타인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 경제방정식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순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윤리방정식이 최악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 바로 연대보증이란 제도에서다. 친 인척이나 지인의 부탁으로 보증을 썼다가 패가망신하는 사례는 흔히 볼 수 있다. 보증액이 10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윤리방정식으로 볼때 보증인이 입는 손실은 정신적인 피해를 감안하면 '1000만 원 + α'.

신석재의 소설 '황반근은 이렇게 말했다'의 주인공 황반근은 마을에서 바보로 통했다. 하지만 그는 바보라는 이

유로 빚 보증을 서지 않아 오히려 파산을 면할 수 있었다. 주민들이 모두 연대보증으로 경운기 등을 샀지만 그에게만은 보증 얘기를 꺼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제시대때 도입돼 지금까지 '금융 연좌제' 역할을 해 온 연대보증 제도가 사라진다고 한다. 정부의 압박에 밀려 은행들이 수용하기로 한 측면이 있지만 어찌됐건 바보가 된 것이다. 낡은 과거는 보증제 폐지를 계기로 은행들이 오히려 대출을 줄이거나 금리를 올리지 못하도록 면밀한 방책을 마련하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장필수 사회부 차장 bunyong@kwangju.co.kr

## 연대보증



<b>光 叻 日 報</b>		<b>The Kwangju Ilbo</b>	
회장 <b>金鐘宅</b>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논설주간 <b>申港樂</b> 편집국장 <b>李庚完</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가)11간지 광주광역시 중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집부 2200-649 여론매부 2200-621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산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주요도로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